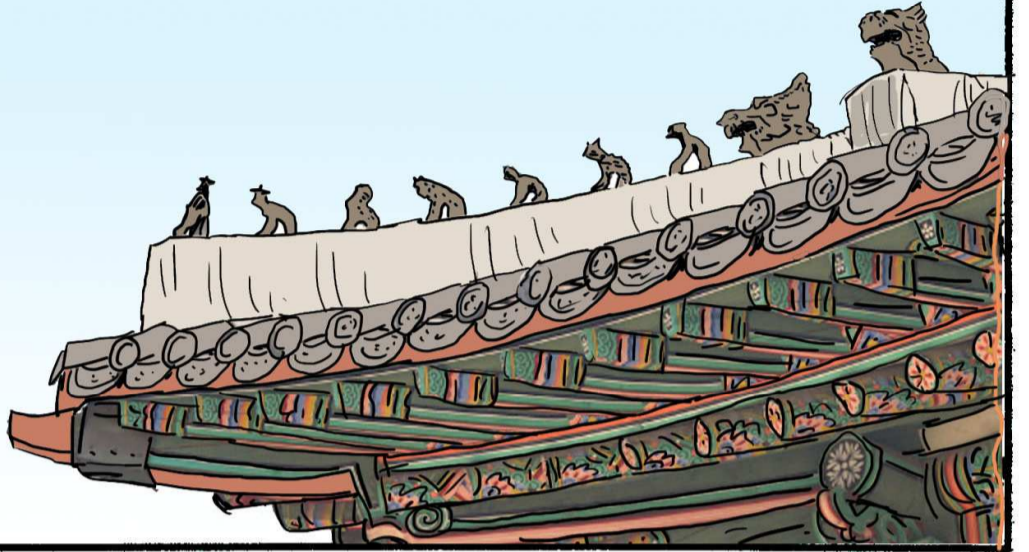


# 11. 바른 길로 나아간 벼슬살이(34세)



벼슬살이에는 뜻이 없는 퇴계였다.



그런데 연로하신 노모가 계셨으니...



홀어머니가 눈에 걸리는구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잘 모실 수 있는데...







처갓집이 영주라하니  
내게 한 번 인사하러  
오라해야지.



동향 출신인 내가  
우의정으로 있으니  
든든할거야.



그런데

우의정 대감께서  
날 뵙자하신다고?

예 주인님.



난 그분을 뵈일 일이 없는데  
왜 날 뵙자는 걸까?

예?



나으리,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을 자주 찾아뵈야 출세하는데  
도움이 된다니까요?

시끄럽다!

퇴계는 김안로에 끝까지  
인사하러 가지 않았다.

김안로가 분노했다.

다들 나한테 줄을  
못서서 안달인데  
이럴 수가 있나!

결국 김안로의 눈 밖에 난 퇴계에게  
주어진 자리는 승문원의 제일 말석.



승문원承文院 :  
조선 시대,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은 관청

거보셔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가서 인사  
드리고 제대로 된 자리로  
달라하셔유.

마당쇠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자리가 아니면  
뭐가 중요한데유?

직업에 귀천이 없듯 자리에도 귀천이 없어.  
어떤 자리에 있던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헝~, 그래도  
주인나리...

김안로의 눈 밖에 난 퇴계는 승진할 때면  
번번히 좌절되었으나 끝까지 찾지  
않았다.